

**BRUSSELS
IN SONGEUN:
IMAGINING
CITIES
BEYOND
TECHNOLOGY
2.0**

**2019.3.25
– 6.8**

인사말 4

서문 8

전시 소개 — 크리스토프 드 야허 12

박제성 16

유네스 바바알리 20

피에르 장 지루 24

랍[오] 28

라빗시스터즈 32

펠릭스 루크 산체스 36

안느마리 마스 40

뫼 44

박혜민 48

비트 스트뤼리 52

토마스 윌먼 56

염지혜 60

글루온 소개 64

Greetings 5

Preface 9

Introduction by Christophe De Jaeger 13

Je Baak 16

Younes Baba-Ali 20

Pierre Jean Giloux 24

LAB[au] 28

LarbitsSisters 32

Félix Luque Sánchez 36

AnneMarie Maes 40

Mioon 44

Hye Min Park 48

Beat Streuli 52

Thomas Willemen 56

Ji Hye Yeom 60

GLUON 65

서문

2019년 3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Brussels in SongEun: Imagining Cities Beyond Technology 2.0» 전시가 개최된다. 브뤼셀 소재 아트&테크놀로지 플랫폼 글루온(GLUON)과 (재)송은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수도 브뤼셀 지구(Brussels-Capital Region) 및 벨기에 프랑스어권 공동체(French Community of Belgium), (재)송은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벨기에 국왕과 여왕의 대한민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기술 혁명의 시대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 속에서 미래의 도시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도시들은 무한한 자원과 사람, 아이디어, 기회 및 지식을 끌어 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힘을 지닌다. 글로벌 인구의 50%는 이미 도시에 거주 중이며, 이 수치는 2050년 70%까지 증가할 것이다. 만약 세계 각 도시들이 이러한 급격한 인구 이동과 편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 될 것이다. 도시의 현재 모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도시들은 사회·민주적인 발전과 더불어 기술·경제·환경 등의 이슈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각 도시들은 각종 정치, 사회, 종교 및 환경과 관련된 도전과제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PREFACE

From 25 March until 8 June 2019, SongEun ArtSpace proudly presents the exhibition *Brussels in SongEun: Imagining Cities Beyond Technology 2.0*. This exhibition has been conceived by the Brussels-based organization GLUON in collaboration with SongEun ArtSpace, with the support of the Brussels-Capital Region and the French Community of Belgium, and is organized on the occasion of the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of Their Majesties the King and the Queen of the Belgians.

Brussels in SongEun: Imagining Cities Beyond Technology 2.0 is an exhibition and discussion platform that stimulates the discourse around the future of our cities in times of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ever-increasing global challenges. Contemporary cities are magnets that attract people, resources, ideas, opportunities and knowledge. 50% of the world's population already lives in cities and this percentage will rise to 70% by 2050. Today cities have to respond to this speed of migration and concentration or they will become social ticking bombs. The reality of a city is never given, its evolution not immutably determined. How will they manage social and democratic developments, but also technolog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n a global world? Each city will be confronted with different political, social, religious and ecological challenges that can only be solved by the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between many different players.

각 도시들이 격변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기술은 오랫동안 필수 요소로 여겨졌다. 전 세계는 처음부터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도시 환경과 그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도시 내 삶의 질을 제고해왔지만 이는 주로 에너지 효율성, 이동성 및 인프라 등 기술분야에만 국한되었었다. 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었으며 미래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발전과 관련된 심리, 철학, 윤리, 사회 및 예술 등의 분야는 간과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Brussels in SongEun: Imagining Cities Beyond Technology 2.0»은 ‘기술 혁신의 시대에 바람직한 스마트 도시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현대 시각예술가들을 사회정치적인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글루온(GLUON), 송은 아트스페이스, 그리고 브뤼셀에서 활동중인 독립큐레이터 이민영이 기획을 맡은 이번 전시에는 브뤼셀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작가 12인이 참가해 총 13점의 설치작품을 전시한다. 이들은 더욱더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화를 이끌어낼 비판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비전을 선보일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정책 입안자, 기업, 시민 및 운동가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For a long time technology has been seen as a crucial element in preparing cities for a turbulent future. Since its early days, the application of new digital technologies to the urban environment and processes has been celebrated worldwide for its ability to increase the quality of urban living, but this engagement has mostly been limited to a technocratic focus on energy efficiency, mobility and infrastructure. Moreover it has privileged top-down interventions by local government actors and mostly overlooked psychological, philosophical, ethical, social and aesthetical questions related to digital developments impacting our future cities.

This is why *Brussels in SongEun: Imagining Cities Beyond Technology 2.0* engages in a socio-political discourse that involves contemporary visual artists in facing this issue—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a desirable ‘intelligent’ city in a time of technological revolution? Curated by GLUON, SongEun ArtSpace and the Brussels-based Korean curator Min Young Lee, the exhibition presents 13 installations of Brussels and Seoul-based artists whom propose critical and creative visions leading to the conceptualization of more human and original “intelligent” cities. Their visions could be at the origin of the emergence of new paradigms and certainly have the competence to engage and inspire a large participation of policymakers, companies, citizens and activists in the search for future cities where all of us feel at home.

전시 소개

브뤼셀에 위치한 아트&테크놀로지 플랫폼인 글루온(GLUON)은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과학, 기술분야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이것이 문화·예술 이외의 분야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연구해왔다.

«Brussels in SongEun: Imagining Cities Beyond Technology 2.0»은 ‘스마트 도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전시이자 논의의 장이다. 전 세계는 처음부터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도시 환경과 그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도시 내 삶의 질을 제고해왔지만 이는 주로 에너지 효율성, 이동성 및 인프라 등 기술분야에 국한되었었다. 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었으며 미래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발전과 관련된 심리, 철학, 윤리, 사회 및 예술 등의 분야는 간과되어왔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 혁신의 시대에 바람직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민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사회정치적인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독창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된다. 예술가의 감수성이야 말로 스마트한 도시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참여적이며, 즐거운 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핵심이라고 믿는다.

도시 개발과 관련해 기술만능주의와 예술적 접근법간의 괴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술적 원리에 의한 도시 계획(Der Städtebau nach seinen künstlerischen Grundsätzen, 1889)』에서 19세기 예술사가 까밀로 지떼(Camillo Sitte)는 “도시는 예술적인 가치와 이상을 염두하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화로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구성의 요소들이 ‘산만하고 따분한’ 결과물에 자리를 내주었다고 언급했다.

INTRODUCTION

In the last years GLUON, a Brussels-based platform for Art, Science and Technology, has focused upon the larger context of art, science and technology collaborations and their spill over potential for other non-artistic fields.

Brussels In SongEun: Imagining Cities Beyond Technology 2.0 is an exhibition and discussion platform that stimulates the discourse around ‘Smart Cities’. Since its early days, the application of new digital technologies to urban spaces and processes has been celebrated for its ability to increase the well-being of citizens, but this engagement has mostly been limited to a technocratic focus on energy systems, mobility and building efficiency. It has privileged top-down interventions by local government actors and mostly overlooked psychological, philosophical, ethical, social and aesthetical questions related to digital developments impacting our future cities. Therefore we have to engage in a sociopolitical discourse that involves citizens and different interest groups in facing this issue—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a desirable future, one worth living in? In this discursive process, a very important role is attributable to the artist. The exhibition presents artworks as a starting point for original and alternative views on the Smart City. We believe that the sensibility of artists is highly relevant in the conceptualisation of a city that is not only smart, but also comforting, participatory and fun.

This technocratic versus artistic approach in urban development is not new. In *Der Städtebau nach seinen künstlerischen Grundsätzen* the 19th century art historian Camillo Sitte already defended the notion that cities should be designed with artistic merits and ideals in mind. He commented that aspects of composition, which produced harmonious effects, were yielding to the ‘loose and dull’ outcomes of technical considerations. The successful Italian squares often made majestic moves that could not easily be measured against metrics of road efficiencies. But apart from these aesthetical considerations, the exhibition shows that contemporary artists relate in many different ways to technology and the city. Some of them use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and biology to create new inspiring tools. Others present utopic worldviews or applications that might inspire technologists and scientists working on smarter cities.

성공적인 이탈리아의 광장들은 도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만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융합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이러한 미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가들이 기술과 도시라는 주제에 대해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첨단 디지털 기술과 생물학을 이용해 새로운 영감을 주는 도구를 만드는 이들이 있는 반면, 스마트 도시를 연구하는 기술 또는 과학 전문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이나 응용분야들을 제시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예술가들은 항상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촉을 발휘해 왔다. 시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는 “예술가들은 일반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인식하고 묘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가장 주요한 쟁점은 ‘스마트’한 브뤼셀은 더욱더 포용적이고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보호와 감시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사회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지 고심해야 한다. 아티스트는 이 모든 논의의 과정에서 수 많은 정책입안자, 기업, 시민 그리고 활동가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이는 이번 전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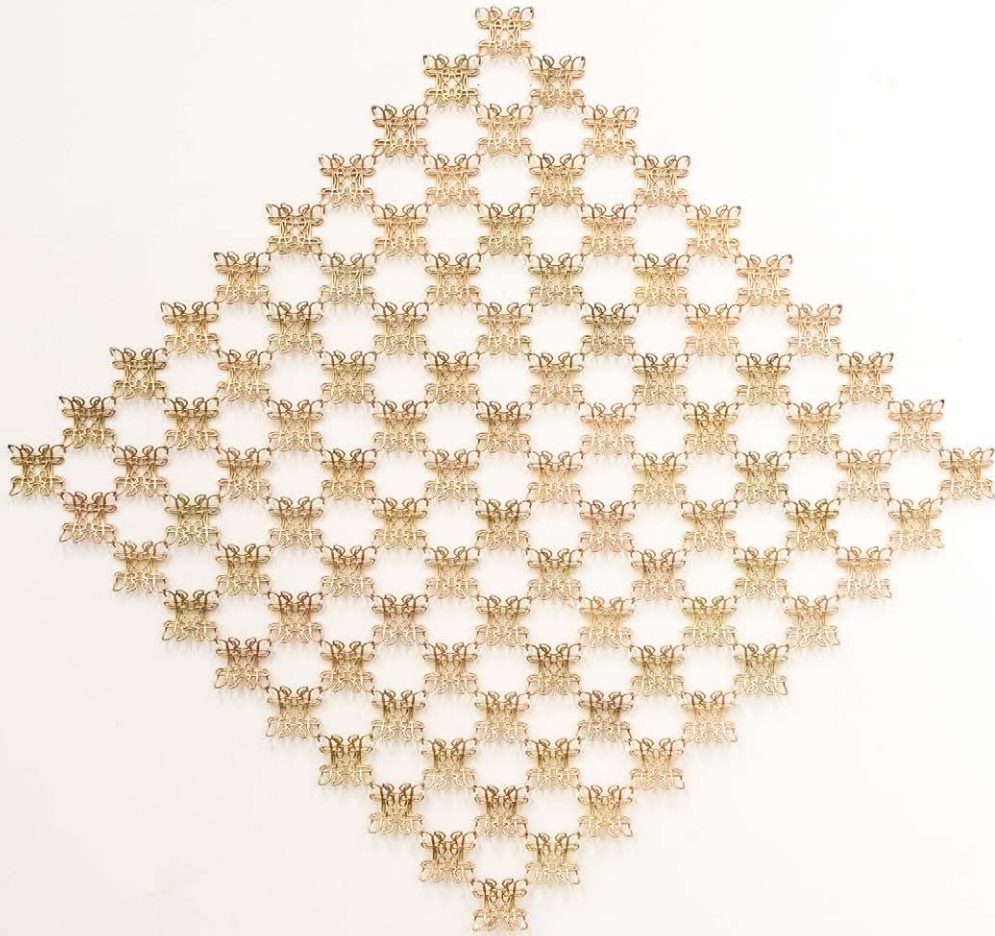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지면을 빌어 이번 전시의 참여작가들과 따뜻한 환대와 성원을 보내준 송은문화재단 그리고 본 전시를 주최한 수도 브뤼셀 지구 및 벨기에 프랑수어권 공동체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GLUON 설립자 & 관장
크리스토프 드 야허

Artists have always imagined the future,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critical antennae of our contemporary society. The poet Ezra Pound stated that “artists sense and describe aspects of the world around us that the rest of us don’t see because we are so busy living in it”. A major artistic statement in the exhibition is that a ‘smart’ city should be inclusive and take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its population. Too often technology is seen as a tool for protection and surveillance, but how can it lead to social progress and more opportunities for vulnerable communities? Artist have the power to engage and inspire a large participation of policymakers, companies, citizens and activists in these discussions. And this is exactly what *Brussels in SongEun* aims to facilitate.

In the meantime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participating artists, the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for their generous hospitality and support and the Brussels-Capital Region and the French Community of Belgium for making this possible.

Christophe De Jaeger
Founder & Director, GLUON



개체 관계

Entity Relationship, E-R

2019

Brass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of the Artist

『개체 관계』(2019)는 홍채 인식, 3D 프린팅 기술, 가상현실 등 4차 산업의 주축이 되는 기술을 활용한 작업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어느 때 보다 기술 의존도가 높은 미래를 맞이하며 이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함께 직면하고 있다.

미래를 만들어 나갈 기술은 결국 지금의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를 따를 것이다. 다만 두려운 것은 인류가 지향하는 최소한의 가치가 과연 합의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대화와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 인류는 어느 때보다 분열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 관계들간의 갈등과 혐오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국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은 방향을 잃는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즉,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 공감의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의 근거가 되어야 할

Iris recognition, 3D printing and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applied to this work are the main pillar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advent of the latter, mankind has never been so reliant on technologies, facing both hope and fear for what the future holds for us. Technologies that will shape the future will definitely follow the values upheld by mankind. However, what sparks fear is whether the minimum values we practice are truly based on a consensus. At a time when mutual dialogue and understanding have become more relevant than ever before, people are displaying conflicts and friction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here conflicts and hate among different relationships are revealed to the extreme, conceptualization of smart cities seems to have lost its direction. After all, it is the human to human relationship, that is, understanding, respect and empathy for the other, that should be the basis for the concept of a smart city.

것이다. 갈등 관계의 두 사람이 서로를 한 시간 동안 바라보는 불편한 경험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와 연결성을 깨닫는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상공간에 데이터 좌표로 시각화하고 이를 3D 프린팅을 통해 물성화하고 캐스팅하여 서로 엮여 벽과 같이 표현한다. 그러나 이 벽은 마치 커튼과 같아 나누고 있지만 닫혀있지 않고 서로를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의지로 열수 있는 벽이다.

Such uncomfortable experience, where two people in conflicting situations have to stare at one another for an hour, will allow spectators to understand about the mutual interaction and connection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Each and every gaze of watching one another is visualized as data coordinates in a virtual space, which is materialized through a 3D printer and then cast to be represented as a wall. However, this wall acts like a curtain in that it is dividing yet sharing, allowing both to feel for each other...a wall that can surely be opened with our will.



개체 관계 (detail)
Entity Relationship, E-R
(detail)

2019
Brass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of the Artist

박제성(1978년 한국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의 작업은 원시불교의 수행과 현대 철학의 접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는 관람객이 일상에서 겪는 장면들을 낯선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주목 대상을 끊임없이 바꾸거나 제거한다. 진지함에서 유머로, 친숙함에서 불편함으로, 화려함에서 비어있음으로, 작가는 관객들에게 익숙한 가치에 대한 주인의식을 환기하여, 쉽지만 익숙치 않은 질문으로 성찰과 깨달음을 얻게 한다. 서울대학교와 영국왕립예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중앙미술대전 대상, VH 어워드 그랑프리, 서울시 좋은빛상 최우수상 등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런던과 서울에서의 5회의 개인전을 선보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런던 사치 갤러리,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로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Je Baak (b. 1978, KR. Lives and works in Seoul, KR)'s artistic practice centers on the crossroad of Zen Buddhism and contemporary philosophy. He continues to alter or eliminates the object or subject of focus from his works so that the viewer can experience familiar scenes from altered perspectives. Transforming the serious into the comical, the familiar into the uncomfortable, and the spectacular into the empty, Baak forces viewers into an introspection, developing the beginning of an 'inward eye' whereby self-realization and ultimately enlightenment can be attained in an unfamiliar way. Je Baak has presented his works in several exhibitions worldwide including HADA contemporary (London), Saatchi Gallery (London) Seoul Museum of Arts (Seou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and Ars Electronica (Linz). His works are included i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umho Museum, Seoul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중앙일보, 현대자동차 그룹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하며 Media Art, Art & Technology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MoA), Korea Joongang Daily, Hyundai Motor Group, etc. Baak is currently professor at the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teaches Media Art, Art & Technology.



2011-2018
Parabolic antennas,
programmed engines,
electric cables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of the Artist

유네스 바바알리는 'Paraboles'(2011-2018)를 통해 이민자들과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들간의 물리적이며 은유적인 관계를 모색한다. 작가는 전시장의 화이트 큐브 공간에 위성접시라는 대중적인 문화적 수사를 설치한다. 이 안테나는 유럽 도시들에 위치한 이민자 주거 단지들의 외관을 장식하는 것으로 TV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향'과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다. 바바알리는 접시의 위치를 밖에서 안으로 바꿔놓으면서 신호 수신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물체는 양 옆을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며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작가는 조작이라는 전복 행위를 통해 '고향'을 정확히 위치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는 실제로 두 세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수 많은

In *Paraboles* Baba-Ali explores the physical and metaphorical relationship between migrants and their host communities. He installs the popular cultural trope of the satellite dish in the white space of the gallery. This object adorns the exterior facades of migrant housing complexes in European cities, allowing them to connect with 'home', through televised images and sound. By reversing the location of the dish from outside to inside, Baba-Ali disrupts its ability to obtain a signal. It must therefore moves from side to side in a futile attempt to properly perform its function. Through this subversive act of manipulation, Baba-Ali attempts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impossibility of locating 'home', a situation that many migrants find themselves in, where they exist in a state of limbo between two zones, with a weakened connection to 'home' akin to the defunct operation of the satellite dish. By re-imagining this scenario, Baba-Ali highlights how migrant culture has mutated and been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고향'과의 끈이 약해졌다는 것은 위성접시의 오작동에 비유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이민 문화가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며 동화해왔고, 더 이상 일상적인 통신 채널을 통해서는 소통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assimilated, sometimes involuntarily, and is no longer able to connect properly through typical channels of communication.



2011-2018
Parabolic antennas,
programmed engines,
electric cables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of the Artist

유네스 바바알리(1986년 프랑스 출생, 브뤼셀 거주 및 활동)는 공공장소나 특이한 장소에서 독창적이며 비판적인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특히 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몸매 깊이 벤 습관으로 관람객과 그리고 우리사회의 각종 역기능들과 대면한다. 바바알리의 작품은 종종 레디메이드(readymade) 양식을 띄지만, 그 명백한 심플함의 기저에는 복잡함을 균형잡는 활동이 전개된다. 2008년 스트라스부르 고등장식미술학교와 2011년 엑상프로방스 고등미술학교를 졸업 후 각종 국제 전시회와 비엔날레에 다수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2018년 5월, 브뤼셀의 KANAL(퐁피두 센터) 오프닝에 전시될 <무제>(2018)라는 제목의 신작 커미션을 선보였다.

Younes Baba-Ali (b. 1986, FR. Lives and works in Brussels, BE) makes art that is unconventional and critical, and that is mostly shown in public spaces or unusual places. He uses his keen observation skills to raise pertinent questions with society and above all, his audience. Through his work he aims to confront the spectator with his ingrained habits and the dysfunctions of our contemporary society. Baba-Ali's work often assumes the form of the readymade, but underneath its apparent simplicity, a complex balancing exercise is taking place. He graduated from l'Eco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de Strasbourg in 2008, and from l'Ecole Supérieure d'Art d'Aix-en-Provence in 2011. He has participated in several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biennials worldwide. In 2018 Baba-Ali received a commission to create a new work, entitled *Untitled* for the opening of KANAL (Centre Pompidou) in Brussels.



S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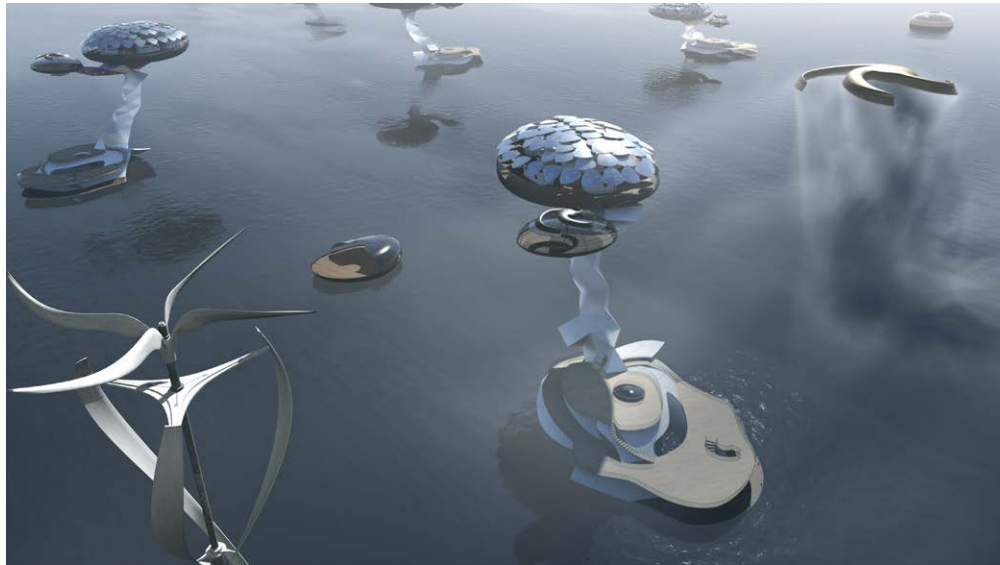
2017
Color video, sound,
Full HD, 15min 15sec

《Invisible Cities》는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교토 등 일본 주요 도시들의 다양한 자화상으로 구성된 4부작 필름이다. 이 영화의 사이클에서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된 실제 이미지들은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들 위에 겹쳐지면서 가상과 현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혼합되는 현대 일본사회를 반영한다. 《Invisible Cities》는 간사이 지방 오사카 인근의 시골 여행을 담은 필름 《Stations》(2017)로 마무리된다. 이는 1970년 오사카 세계 엑스포를 가상으로 재구성한 모습을 담은 것으로 그 당시의 건축물은 메타볼리즘(Metabolism)의 전형이었다. 1960년대 당시 일본 건축가와 예술가들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운동은 대중의 상상 속에서 기술이 발전의 동력이라는 신념을 강화했다. 교토 의정서의 원칙에 의거해 교토 비와

Invisible Cities is a tetralogy, comprising various portraits of Japanese cities, namely Tokyo, Yokohama, Osaka and Kyoto. In this film cycle, real imagery — filmed and photographed — is superposed over computer generated imagery, echoing contemporary Japan in which reality and the virtual world constantly encounter and blend in with each other. *Invisible Cities* ends with a film called *Stations*, which is a journey through the countryside around Osaka, the Kansai. It features a virtual reconstruction of the world expo in Osaka in 1970, the architecture of which was the epitome of Metabolism. This utopian movement, which was launched by Japanese architects and artists in the sixties, helped underscore the belief in technology as a source of progress in the public's imagination. After crossing through Kyoto, we will discover 'Biwako Machi', a virtual smart city that was 'built' on the banks of Lake Biwa,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Kyoto Protocol. This city,

호 제방에 '건설된' 가상의 스마트 도시인 '비와코 마치(Biwako Machi)'를 만날 수 있다. 주거지로 구성된 이 도시는 풍력, 수력 및 태양열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한다. 오늘날의 메타볼리즘 운동과 21세기 환경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이 두 개의 유토피아를 혼합함으로써 작가는 우리 사회의 도전과제들이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보여준다. 건축가 마누엘 타디츠(Manual Tardits)와 피에르 장 지루가 공동 설계한 '비와코 마치'는 스마트 도시가 과연 인류세(Anthropocene)의 시대에 도시 계획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which consists of habitable units, is supplied with wind, hydraulic and solar energy and uses nove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regulate its energy flows. The juxtaposition of these two utopias, i.e. the metabolist movement in modern times and the other utopia which is so much more in tune with 21st century ecological concerns, allows us to see how societal challenges have evolved in the past fifty years. 'Biwako Machi', which the artist designed with the architect Manual Tardits, questions whether smart cities could provide an urban planning answer in the Anthropocene era.



피에르 장 지루(1965년 프랑스 출생, 브뤼셀 거주 및 활동)의 작품세계는 정지된, 혹은 움직이는 이미지들과 공간과 볼륨을 탐색하는 설치작품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다. 작가의 작품들은 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매체를 결합하고 혼합한 결과물이다. 시각과 청각의 다양한 구성을 발전시키며, 때로는 2D와 3D,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포함하기도 한다. 컴퓨터가 생성한 이미지와 현실의 이미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관람객은 자유롭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공존하는 본인의 영화에서 작가는 이 두 세계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이들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다중화면 기기를 사용해 관람객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작가의 몰입형 설치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Pierre Jean Giloux (b. 1965, FR)'s work is at the crossroads of several practices: still and animated images, installations that probe space and volume. His films are the outcome of associations and hybridisations of media, using digital technology, in which he develops visual and sound compositions. In some cases, he even includes animated 2D and 3D sequences. The boundaries between computer generated and real images thus fade, giving the spectator free rein to invent his own narrative. In his films,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co-exist, engaging in a dialogue and questioning their limits, especially in his immersive installations, using a multi-screen device, which the spectator is invited to walk through.

Biwako Machi-1 from Stations
part 4

2017
Color video, sound,
Full HD
15min 15sec
Courtesy of the Artist &
Solangproduction Adag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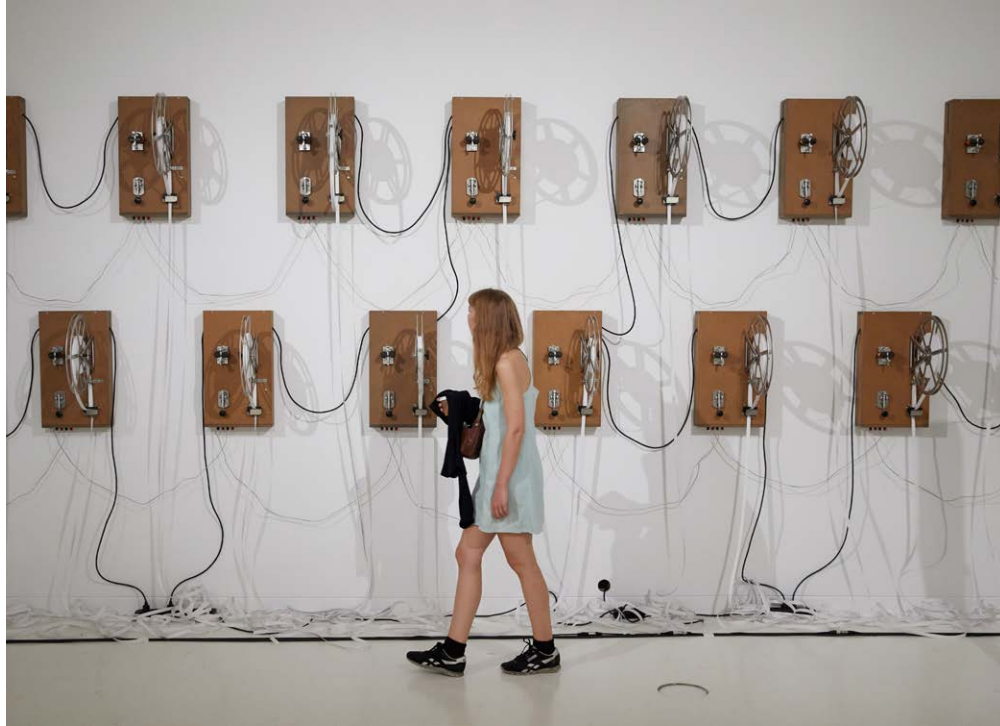
2016
Sound installation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of the Artists

What hath God Wrought?

‘What hath God Wrought?’(2016)의 작품명은 초기 근대 영어로 쓰여진 성경의 『민수기(Book of Number)』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는 1844년 전기와 2진법 코딩 기반의 첫 통신 기술인 전보로 보내진 최초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저서 『유토피아(Utopia, 1516)』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100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보간의 서신을 생성해낸다. 전보는 단어를 소리, 동력 그리고 빛으로 변환한다. 글이 쓰인 말린 종이가 바닥으로 표류하고, 실수들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폐쇄형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질된다. 모스(Morse) 부호들이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잘못된 법칙과 결함이 미(美)가 되는 자기조절(self-regulating) 시스템의 미학과 대조되는 르네상스의

합리주의와 발전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다.

The title of the installation is a line from the *Book of Numbers*, written in early modern English. It was the first message transmitted by telegraph in 1844, the first communication technology on the basis of electricity and binary coding. The artwork is fed by the 100 most used words in Thomas More’s book *Utopia*, feedi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a series of telegraphs. The telegraphs translate the words into sound, kinetics and light. Written rolls of paper drift to the floor. Slowly but surely, mistakes slip into the closed system and the meaning of the words alters. The Morse orchestra deals with the rationalism of the Renaissance and its belief in progress and posits by contrast an aesthetic of a self-regulating system in which the fault rules and defect becomes beauty.



랩[오]는 1997년 브뤼셀에서 창설된 예술가 단체로 마누엘 아벤드루트(Manuel Abendroth), 제롬 데콕(Jérôme Decock) 및 엘스 베르망(Els Vermang)의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된다. 이들은 형상, 색상, 빛 그리고 움직임을 결합하는 알고리즘 방식과 개념적 사고를 통해 현대 미학과 기호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랩[오]는 몬트리올 현대미술관, 뉴욕의 MoMA, 베니스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로테르담 비테 데 비트 현대미술관(Witte de With) 그리고 뉴욕의 뉴뮤지엄 등에서 작품을 전시한 바 있으며 전 세계 공공기관 및 개인 컬렉션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LAB[au] is an artist collective that was founded in 1997 in Brussels. Its three members are Manuel Abendroth, Jérôme Decock and Els Vermang. They question contemporary aesthetics and semiotics, through an algorithmic approach and conceptual thinking combined with geometry, colour, light and motion. LAB[au] has already presented work among others at the Musée d'Art Contemporain (Montreal), MoMA (New York), the Biennale di Venezia (Venice), Seoul Museum of Art (Seoul), Witte de With (Rotterdam), and the New Museum (New York). They have produced several permanent artworks and their artworks can be found in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around the world.



Bitsoil.tax/campa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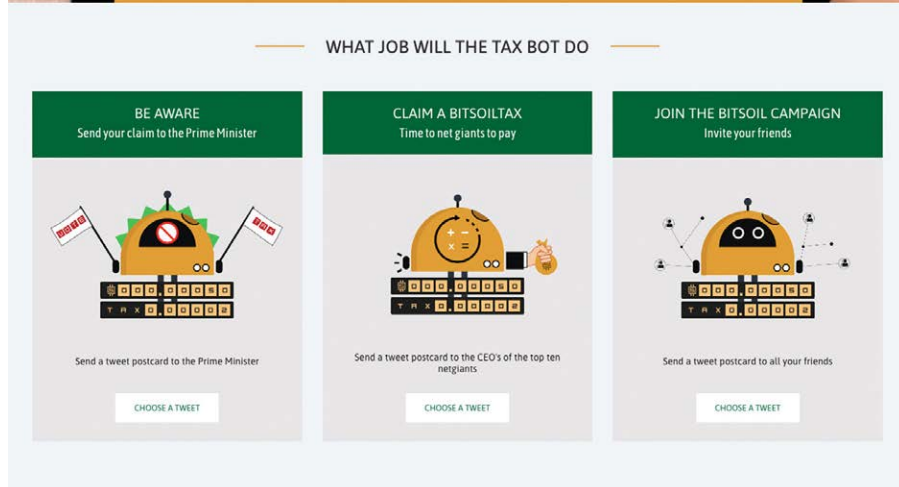
2017
Internet-based installation
244×133×85cm
Courtesy of the Artists

‘Bitsoil.tax/campaign’(2017)은 트위터의 트롤링(trolling) 소셜 미디어봇과 오프라인 설치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작동하는 인터넷 기반의 설치작품이다. 부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는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설계된 이 작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소액 세금 “bitsoil”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한다. 작가는 수익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채굴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평등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시급한 난제들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 수십억의 돈을 벌어들이고, 매일 2.5조 바이트가 넘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Bitsoil.tax/campaign’은 새로운 재분배 모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제스처로, 이를 통해 모든

Bitsoil.tax/campaign is an internet-based installation that deploys its activity both online and offline. The project interacts with trolling social media bots on Twitter and an offline installation. Bitsoil.tax/campaign is designed as a critical tool to restore a fair balance in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wealth tends to be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big companies. The artwork aims to mobilize users of social media platforms to claim a micro tax on their data (or “bitsoil”) and to call for a fair distribution of wealth. The work engages with one of the most pressing problems of the digital economy: the inequalities involved in the mining of user data for profit. The digital economy earns billions on people’s data. More than 2.5 trillion bytes of data are generated daily. Bitsoil.tax/campaign is a call to take action and raise awareness about new types of redistribution models, that might balance the data-driven economy at a time of datafication of everything and in which cities are

것이 데이터화되고 도시가 데이터의 주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데이터 주도 경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becoming major producers and consumers of data.



2017
Internet-based installation
244×133×85cm
Courtesy of the Artists

Bitsoil.tax/campaign

2010년부터 소셜미디어 연구자 베네딕트 자콥스(1964년 벨기에 출생)와 미디어 작가 로르-안느 자콥스(1967년 벨기에 출생)는 아티스트 듀오 라빗시스터즈로 활동해왔다. 브뤼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라빗시스터즈는 예술, 기술,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이들은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와 작품활동을 추적가능성,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 자동화, 데이터 처리 등과 같은 개념을 탐색하는 프로젝트에 결합시키며 협업해왔다. 이들은 디지털이라는 매체의 창의적인 동력과 상상력에 주목한다. 그 중심에는 공과사,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마찰, 기술발전 등에 대한 맹신과 일상과의 괴리가 위치한다. 2011년 라빗시스터즈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과 과학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라빗랩(Larbitlab)’을

Since 2010 social media researcher Bénédicte Jacobs (b. 1964, BE) and media artist Laure-Anne Jacobs (b. 1967, BE) form the artist duo LarbitsSisters. The work of the Brussels-based artist duo is situated at the crossroads of art, technology, political and societal issues. Their collaboration grew out of a shared fascination on new media, merging research and artistic practice onto projects in which concepts such as traceability, network analysis, algorithms, automation, data processing are explored. Their artistic practice focuses on the creative drives and patterns in digital media. Central is the fri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online and offline; between the unbridled faith in technological progress and everyday life. In 2011 LarbitsSisters founded ‘Larbitlab’ aimed at bringing together artists and scientists around societal issues brought by our networked societies. The specificity of Larbitlab lies in the methodological approach, which combines observing practices, media analysis and

창설했다. 라빗랩은 창작활동, 미디어 분석과 연구를 현대네트워크 사회의 기술·사회적인 영향과 연계하는 특별한 방법을 고수한다. 이들의 작품은 세계 각 국에서 국제적인 전시 및 심포지엄을 통해 전시되었다.

research on technical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our contemporary networked society. Their work has been presented in seve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symposia.

www.larbitlab.b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Iñigo Bilbao (3D animation), Damien Gernay (Design of the alphanumeric display), Vincent Evrard (Arduino programming), Jon Bilbao Lopategui (Reply texts). Coproduced by the 'Digital Arts Cell' of the Wallonia-Brussels Federation and iMAL.

2010
Alphanumeric light displays,
sound installation
170×800cm
Courtesy of the Artist

Nihil ex Nihilo: The Dialogue

펠릭스 루크 산체스는 기계지능과 공상과학 등에 주목해왔으며, *Nihil ex Nihilo: The Dialogue*(2010)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작가의 탐색작업의 연장선이다. 만약 컴퓨터가 미친 지능형 개체가 되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미지의 세력에 의해 통제된 인공지능들이 탈출을 감행하고, 요상하며, 엔트로피적이며(entropic) 통제불가능한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이 설치작품은 소외된 다른 기계들을 풀어주고자 하는 컴퓨터 SN W8931CGX66E에 대한 이야기다. 8개의 알파뉴머릭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팸 이메일에서 추출한 문장들을 나타내는 이 설치작업은 각각의 스팸 메시지가 수신된 후 여성의 목소리로 크게 읽힐 때마다 SN W8931CGX66E의 이메일 알고리즘 생성기가 남성의 목소리로 된 답변을 생성함으로써 이에 반응하며

작동된다. 작가는 도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대해 더욱더 비판적인 사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Nihil ex Nihilo: The Dialogue continues Luque's exploration around machine intelligence and science fiction themes. What if computers become mad intelligent entities talking to each other? What happens when these artificial brains controlled by unknown forces try to escape and when their internal dialogues become absurd, entropic and uncontrollable? The installation tells the story of SN W8931CGX66E, a computer that decides to free other machines from their alienated existence. The resulting artwork is a sculptural installation that consists out of 8 alphanumeric displays that broadcasts phrases trawled from junk e-mail. At each spam message received and read aloud by a female voice, the e-mail algorithmic generator of SN W8931CGX66E reacts by generating a reply which a male voice reads. Luque challenges us to think critically about automatiz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cess the massive amount of data being created in cities.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Iñigo Bilbao (3D animation), Damien Gernay (Design of the alphanumeric display), Vincent Evrard (Arduino programming), Jon Bilbao Lopategui (Reply texts). Coproduced by the 'Digital Arts Cell' of the Wallonia-Brussels Federation and iMAL.

2010
Alphanumeric light displays,
sound installation
170×800cm
Courtesy of the Artist

Nihil ex Nihilo: The Dialogue

펠릭스 루크 산체스(1976년 스페인 출생, 브뤼셀 거주 및 활동)는 작품을 통해 인간이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관계를 구축하는지 모색하고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 등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작가는 전자·디지털 시스템, 메카트로닉 조각, 생성형 사운드 스코어, 라이브 데이터 피드 및 알고리즘 프로세스 등을 사용하여 허구와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가까운 미래를 위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관람객들이 기계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 기대를 대면할 수 있게 한다. 베를린 트랜스미디어알레(Transmediale),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브뤼셀 iMAL, 히혼의 라보랄(LABoral) 등 여러 문화예술 기관 및 페스티벌에서 다수의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Félix Luque Sánchez (b. 1976, ES. Lives and works in Brussels, BE) is an artist whose work explores how humans conceive thei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and provides spaces for reflection on current issu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sm. Using electronic and digital systems of representation, as well as mechatronic sculptures, generative sound scores, live data feeds and algorithmic processes, he creates narratives in which fiction blends with reality, suggesting possible scenarios of a near future and confronting the viewer with his fears and expectations about what machines can do. Félix Luque Sánchez has exhibited his works in diverse cultural institutions and festivals; such as Transmediale (Berlin), Ars Electronica (Linz), iMAL (Brussels), and LABoral (Gijón).

www.felixluque.com



*Cabinet #004: Future
Archaeology (The Temporal
Duration Through Which
The Future Is Founded In The
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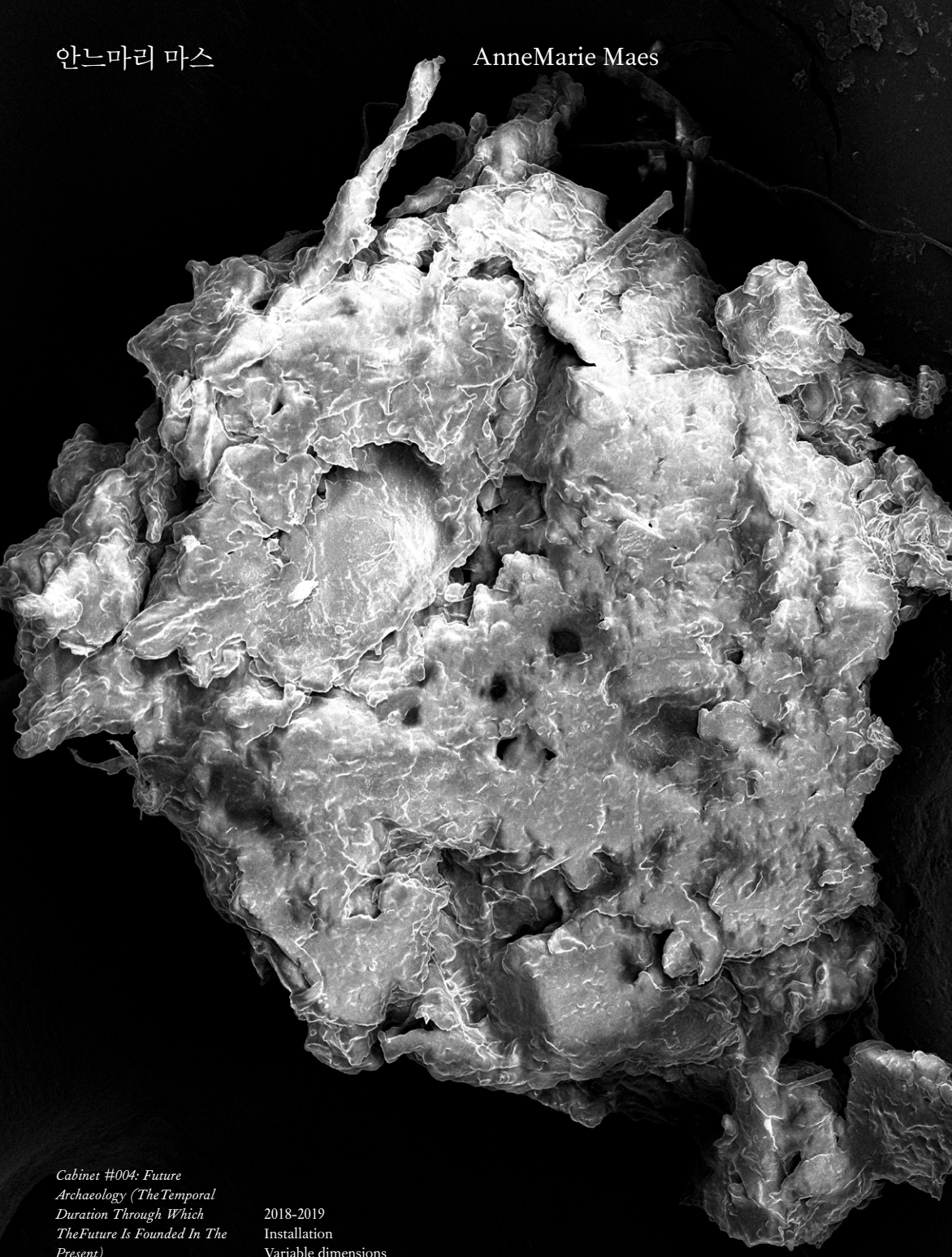
2018-2019
Installation
Variable dimensions

안느마리 마스는 바이오 아트 설치작품인 ‘Cabinet #004: Future Archaeology (The Temporal Duration Through Which The Future Is Founded In The Present)’(2018-2019)를 통해 호기심의 방 ‘Wunderkammer’를 선보인다. 작가는 각종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다양한 고고학·과학적 수집 및 의뢰방법 등을 활용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모든 오브제는 특정 실험의 결과물들이다. 독특한 생물형태를 지닌 유물들은 설치물에 구체적인 리듬을 부여하면서도 핑크색 조명이 내리쬐는 실험실 구조물의 엄격한 형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등 ‘하드함’과 ‘소프트함’이 대비를 이룬다. 작가는 자신만의 과학적인 방법과 바이오 기술을 사용해 생명체를 예술적 소재로써 탐구해왔으며, 최근에는 박테리아와 조류를 사용해 바이오

In the bio-art installation *Cabinet #004: Future Archaeology (The Temporal Duration Through Which The Future Is Founded In The Present)* AnneMarie Maes presents a *Cabinet of Curiosities*, a ‘Wunderkammer’. She appropriates archaeological and other scientific methods of collecting and ordering for the presentation of diverse artefacts. Every object presented on the laboratory tables is the outcome of a particular experiment. The bizarre biomorphic artefacts add a specific rhythm to the installation, but they stand in stark contrast to the strict geometry of the laboratory architecture bathing in pink light: hard and soft oppose each other. In her work AnneMarie Maes adapts scientific methods and biotechnology to explore living systems as artistic subjects. Recently she started a new research project that explores the creation of bio-plastics made out of bacteria and algae. Besides being an alternative for plastics, these new materials can also become alternative energy sources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새로운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러한 신 소재들은 플라스틱의 대체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원이나 건설 자재로 활용될 수 있다. ‘Cabinet #004: Future Archaeology’는 소재과학과 바이오 기술에 대한 예술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발점이 된다. 이번 설치작품에서 보여지는 청사진과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사이를 오가며 진행된 실험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유물, 즉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단편을 노래하는 듯하다.

or to be us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uture Archaeology* offers a concrete starting point for an exploration of possible futures through artistic research on material science and biotechnology. Navigating between a blueprint and a proof of concept, the experiments presented in this installation can be seen as an artifact from the future, a fragment of a world to come.



Cabinet #004: Future
Archaeology (The Temporal
Duration Through Which
The Future Is Founded In The
Present)

2018-2019
Installation
Variable dimensions

안느마리 마스(1955년 벨기에 출생, 브뤼셀 거주 및 활동)는 도시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면밀한 상호작용과 공진화(co-evolution)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예술과 과학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특히 DIY 기술과 바이오 기술에 주목해왔다. 살아있는 유기체 등 각종 생물학적, 디지털 및 전통적인 매체들을 활용해왔으며 이러한 예술적 연구들은 실제 또는 허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테크노유기(techno-organic) 오브제들의 결과물로 이어진다. 디지털 창작과 제작이 결합된 유물,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포함한 설치작품, 여러 종을 아우르는 협업, 에코 데이터로 생성된 다형성의 형태와 모델 등이 대표적이다. 작가는 브뤼셀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 옥상에 야외 실험실과 실험용 텃밭을 조성해 자연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AnneMarie Maes (b. 1955, BE. Lives and works in Brussels, BE) is an artist who has been studying the close interactions and co-evolutions within urban ecosystems. Her research practice combines art and science, with a keen interest in DIY technologies and biotechnology. She works with a range of biological, digital and traditional media, including live organisms. Her artistic research is materialized in techno-organic objects that are inspired by factual/fictional stories; in artefacts that are a combination of digital fabrication and craftsmanship; in installations that reflect both the problem and the (possible) solution, in multispecies collaborations, in polymorphic forms and models created by eco-data. On the rooftop of her studio in Brussels, she has created an open-air lab and experimental garden where she studies the processes that nature employs to create form. Her research provides an ongoing source of inspiration for her artworks. *The Bee Agency* (2017~) as well as

과정을 탐색하며 작품에 대한 모티브를 얻는다. 박테리아와 살아있는 섬유로 실험을 한 프로젝트 *‘The Bee Agency’*(2017~)와 *‘Laboratory for Form and Matter’*(2016~)는 예술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 위치한 각종 설치작품, 조각, 사진 작업, 오브제 및 책에 영감을 주는 틀을 제공한다. 전 세계 여러 미술관과 미술전에 다수의 작품을 전시한 바 있으며 2017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에서 *‘Intelligent Guerilla Beehive’*(2016~) 프로젝트로 혼합예술 부문 특별상(Honorary Mention)을 수상했다.

the *Laboratory for Form and Matter* (2016~) — in which she experiments with bacteria and living textiles — provide a framework that has inspired a wide range of installations, sculptures, photography works, objects and books — all at the intersection of art, science and technology. AnneMarie Maes has exhibited in art centers and at festivals around the world. In 2017, she received an Honorary Mention in the Hybrid Art category at Ars Electronica for the *Intelligent Guerilla Beehive* (2016~) project.

www.annemariemaes.net



2011
HD video
10min
Courtesy of the Artist

Lead Me to Your Door

극히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도시의 확장과 기술·미디어의 발달에 현대 사회는 관음과 노출의 통제가 불가능해졌다. 전세계에 설치된 CCTV,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등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공적·사적인 영역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인간에 내재된 관음적 성향을 부추기며, 이로 인해 개인은 은밀하고 깊숙하게 침투한 타인의 시선에 수동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Lead Me to Your Door’는 이처럼 타인의 사생활 전반에 대한 호기심으로 비롯된 관음적 시선으로 ‘사적’이어야 하는 개인의 증폭된 삶의 행태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엿보는” 영상 작품이다. 7개의 모니터에 비춰지는 영상들은 마치 건너편 아파트를 훑쳐보는 것과 같이 인테리어만 다를 뿐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어둠으로

뒤덮인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은 각자의 정체를 숨기고 환하게 드러나는 타인의 삶과 감정을 관찰하게 된다.

With the expansion of cities accommodating so many people in very limited spaces and rapid developments in media and technology, the world we inhabit today is no longer controllable in terms of voyeurism and exposure. With CCTVs installed everywhere and spread of smartphones, social media... such quantum leap of technology is dismantling the boundaries between what is private and public, stirring up the voyeuristic nature in human beings while driving individuals to be manually exposed to the attention of others that has already made its discrete yet profound infiltration. In this context, *Lead Me to Your Door* is a video work that continues to explore and “peek into” the lives of individuals — which otherwise should be “private” — through the voyeuristic lens that was sparked by curiosity about the overall private life of others. The images playing in 7 monitors - as if peeping into an apartment on the other side- reveal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are living

their respective daily life, within a same given space. Interior design is the only difference to be found. Spectators, upon entering the space filled with darkness, can hide their respective identities and observe the lives and feelings of others that are laid bare.



Lead Me to Your Door

2011
HD video
10min
Courtesy of the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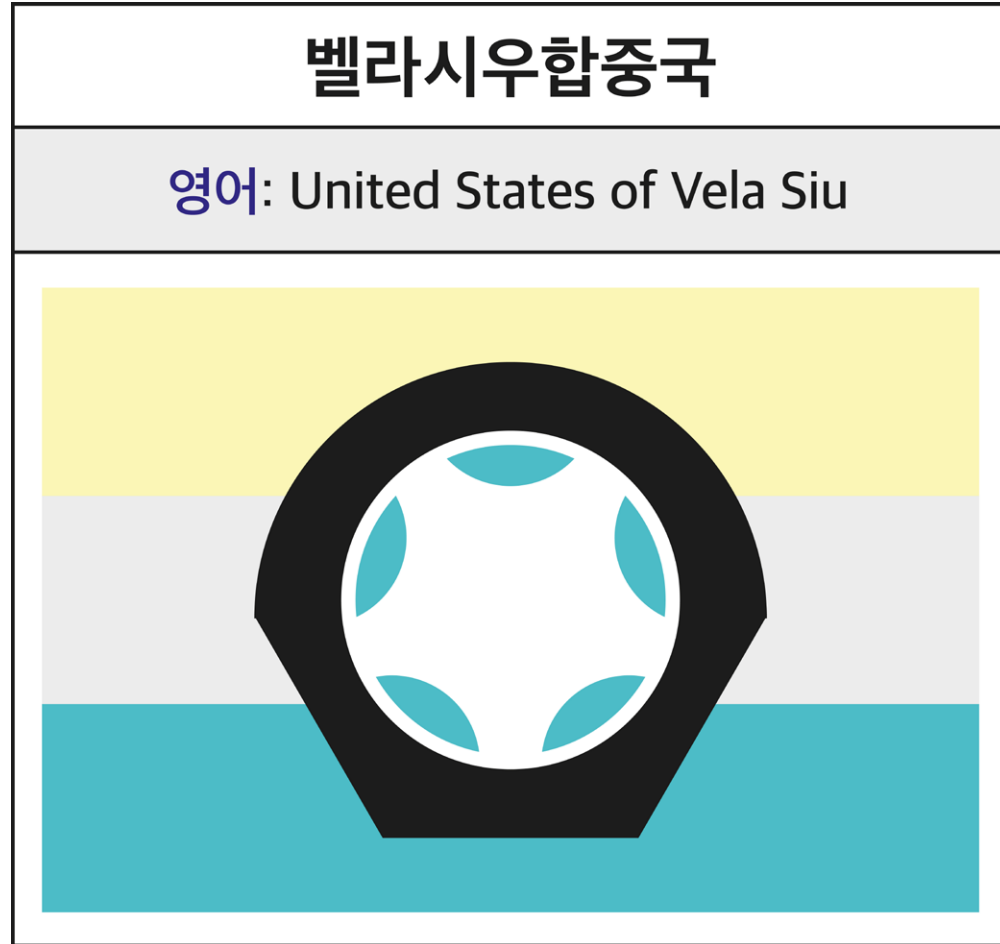
김민선과 최문선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그룹 뫼(서울 거주 및 활동)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디어 네트워크 시대의 군중, 개인과 집단 속에서 형성되는 공공의 정의를 영상과 키네틱 오브제, 인터랙티브 아트, 사진, 사운드 등을 통해 구현하며 미디어 매체의 확장을 실험해왔다. 뫼의 작업은 초기 거대한 스펙터클로 표현한 군중을 시작으로 관객과 무대의 관계로 빛낸 기억과 군중, 사회를 형성하는 거대 시스템에 속한 개인과 군중의 존재 방식 등 끊임없이 ‘군중’이라는 주제를 확장하고 발전시킨다. 2005년 쿤스트뮤제움 본(Kunstmuseum Bonn)에서와 첫 번째 개인전 이후 독일 ZKM, 영국 리버풀 비엔날레, 한국 아르코미술관 등 국내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홍콩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Mioon is an artist collective based in Seoul, Korea, founded by Min Kim and Moon Choi. Ever since its inception in 2001, the artist duo has embodied the masses of the media network era and the public justice formed within individual and collective groups via films, kinetic objects, interactive arts, photos, and sounds, while being engaged in an experimental expansion of different media sources. The motifs of Mioon’s works range from the masses represented as huge spectacles, memory and the masses as a metaphor to spectators and stage, to the raison d’être of the individuals and collectives living in a huge system constituting our society. Kim and Choi continue to expand and develop the theme of “the masses.” Their first solo exhibition took place in Kunstmuseum Bonn in 2005, followed by many others in ZKM, Liverpool Biennale, Arko Art Center. They have ha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lo and group shows in Germany, UK, US, and Hong Kong. Their artworks can be found in

국립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외 여러 주요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2005년에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정부가 수여하는 젊은 미디어 예술가상을, 2009년에는 송은미술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the collections of institutions lik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to name a few. Mioon won the Young Media Artist Award pres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of Land Nordrhein-Westfalen (NRW) in 2005 and the SongEun Award Grand Prize in 2009.

www.mioon.net



보통의 국가들:
벨라시우합중국
Ordinary Nations: United States of Vela S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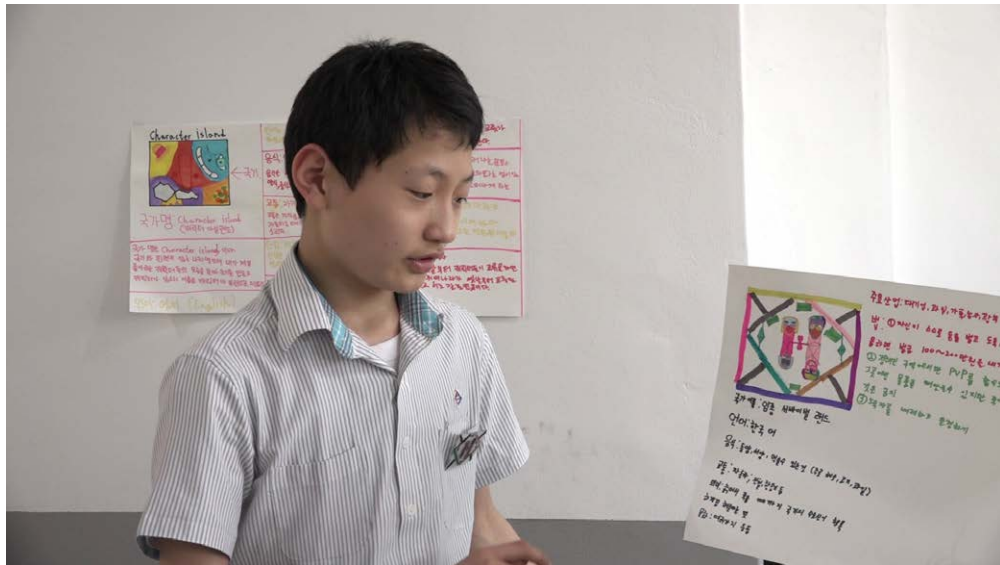
2017
Mixed media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of the Artist

2016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 ‘보통의 국가들’은 특정 그룹의 참여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살고 싶은 국가와 시스템을 구현해 보는 작업이다. 작가는 참여자들에게 이민, 교육, 산업과 환경, 정치와 행정, 성장과 분배에 대한 5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가장 비슷한 생각을 표현한 참여자들을 한 팀으로 구성 후 팀들의 토론을 통해 국가 체제와 구조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모두가 동의하는 가상의 국가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천에 거주하는 13-15세 참여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건설된 ‘벨라시우합중국(United States of Vela Siu)’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전문 리포트 형식으로 디자인된 참여자들이 살기 원하는 이상적인 국가와 국가 구조를 살펴보고, 결과물이 실제로 하나의 대안이 될

Since 2016, Hye Min Park has organized multiple workshops with a specific group of people to develop the theory of an imaginative nation, a utopia where everyone would desire to live. Park posed five questions regarding immigration, education, industry, and environment,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nd then grouped those participants together who shared similar ideals to build a consensus on the concept of a national system and structure based on team discussions. In the end, an imaginative nation and system were chosen with the unanimous support of all participants. In this exhibition, Park presents “The United States of Vela Siu” which was developed through workshops with participants aged 13 to 15 living in Incheon, South Korea. It is a way for the artist to have a look at what is an ideal nation and national structure that participants want to live in, designed in a professional reporting format, and the deliverable itself will become one of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the viable solution options.



보통의 국가들:
벨라시우합중국
*Ordinary Nations: United
States of Vela Siu*

2017
Mixed media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of the Artist

박혜민(1984년 한국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은 사회를 지탱하는 구조와 개인의 경험을 분석해 일상적 공간에 대한 허구적 재현, 허구와 실재를 넘나드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일련의 판매 퍼포먼스를 통해서 현 시장경제 체계하에서 예술의 가치와 향유에 대한 고민을 유희적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계화 시대에 한 도시에 맞춰 변형되고 뒤섞이는 다문화의 공존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프로젝트로 초대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페이크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박혜민은 런던 목스페이스(MOK Space), 한국 캔파운데이션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런던 팩햄 스페이스(Peckham Space),

Hye Min Park (b. 1984, KR. Lives and works in Seoul, KR) takes an analytic view of the structures supporting the society and her personal experience to work on projects that draw on participation of people, traversing between fictional representations, fiction and reality. Park, through a series of sales performance, has playfully questioned the value and enjoyment of art under the current market economy system. Recently, motivated by her interest in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cultures that become hybridized and adapted to a specific city in the globalized world, Park has led a long-term research, in which she invites people to her project to share their experience, which in a way is embodying visualization in a fake documentary format. Park has held major solo exhibitions took place in Mok Space(London), Can Foundation (Seoul) and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Peckham Space (London), Incheon Art Platform, Jeju Museum of Art among others.

인천아트플랫폼, 제주도립미술관 등 다수의 국내외 그룹전에 참여해왔다.



코멘트가 제거된 움직임들,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이동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흐름...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스트렐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 대신 관찰을 하고, 이 과정에서 몰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실재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해하고자 한다. <Clémenceau 10-08-06>(2006)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고 때로는 서로 다른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동질화된 하나의 덩어리로 혼합되는 곳, 내 집 앞 브뤼셀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이 바라볼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찰자의 몫이다. 바라보고 관찰하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사실 그 의도는 확실치 않다. 여과 없이 보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도시 공간이 개인 및 단체가

중복되는 시스템으로 변모하는 스트렐리만의 매력넘치는 설치작품들의 핵심이 된다.

The flow of time in uncommented movements, a smooth, gliding motion: where are they going and where do they want to go? Streuli does not ask such questions. Instead he observes, and in the process inspires a desire to be immersed,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our restless modern era. *Clémenceau 10-08-06* shows the Brussels just outside his front door — a place where people from all around the globe assemble and sometimes blend into a homogenous mass, despite their different international identities. The observer has to decide what is worth looking at: what is important or unimportant. The act of watching and observing is provoked, yet the nature of the intention remains unclear. Unfiltered seeing and recording are the main ingredients in Streuli's beguiling installations in which urban space becomes a system in which the individual overlaps with the collective.



2006
HD video, silent
42min
Courtesy of the Artist

Clémenceau 10-08-06

비트 스트렐리(1957년 스위스 출생, 취리히와 브뤼셀 거주 및 활동)는 창작 초기부터 도시환경을 자신의 무대로 삼으며 전 세계 여러 도시의 시민들과 이들의 일상을 분리된 시선으로 포착하고,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이를 시각적인 효과가 강렬한 작품들로 선보여왔다. 2000년부터 세계화와 그 여파에 주목하며 유럽 사회 내에서의 비서구권문화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작품의 소재와 관련해 더욱더 회화적이며 추상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인 개념으로써의 도시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대도시에서 벗어나 도시 외곽이나 소도시에서도 작업을 진행한다. 작가는 신기술을 적용한 대형 설치작품들을 공공장소에

Beat Streuli (b. 1965, CH. Lives and works in Zurich, CH and Brussels, BE) uses photography and video to create works of striking visual impact. Since the early days of his career Streuli uses the urban environment as his stage, capturing the inhabitants and daily life in various cities around the world with a detached gaze. From 2000 onwards, following a reflection on globalization and the resulting conflicts, Streuli became interested in the presence of non-Western cultures in the European social fabric. Currently, Streuli takes a more pictorial and increasingly abstract approach to his subjects. He is interested in the inhabitants but also in the cities as urban and architectural concepts and recently has started to work outside the world's metropolises, in suburbs and smaller cities. He develops large installations for public space by integrating new technologies and produces works that combine fixed and moving images and more recently interactivity. By staging monumental

전시하고, 정적·동적인 이미지를 아우르는 작품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인터랙티브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대형 사진 액자 등 기념비적인 설치작업을 미술관과 공공장소에 전시함으로써 근대 대도시에서의 정체성과 표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1990년 취리히 헬름하우스(Helmhaus)에서의 첫 번째 개인전 이후 런던의 테이트 미술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그리고 파리의 팔레 드 도쿄 등에서도 개인전을 개최했다. 현재 작가의 사진들은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그리고 달라스/포트 워스 국제공항 등에 영구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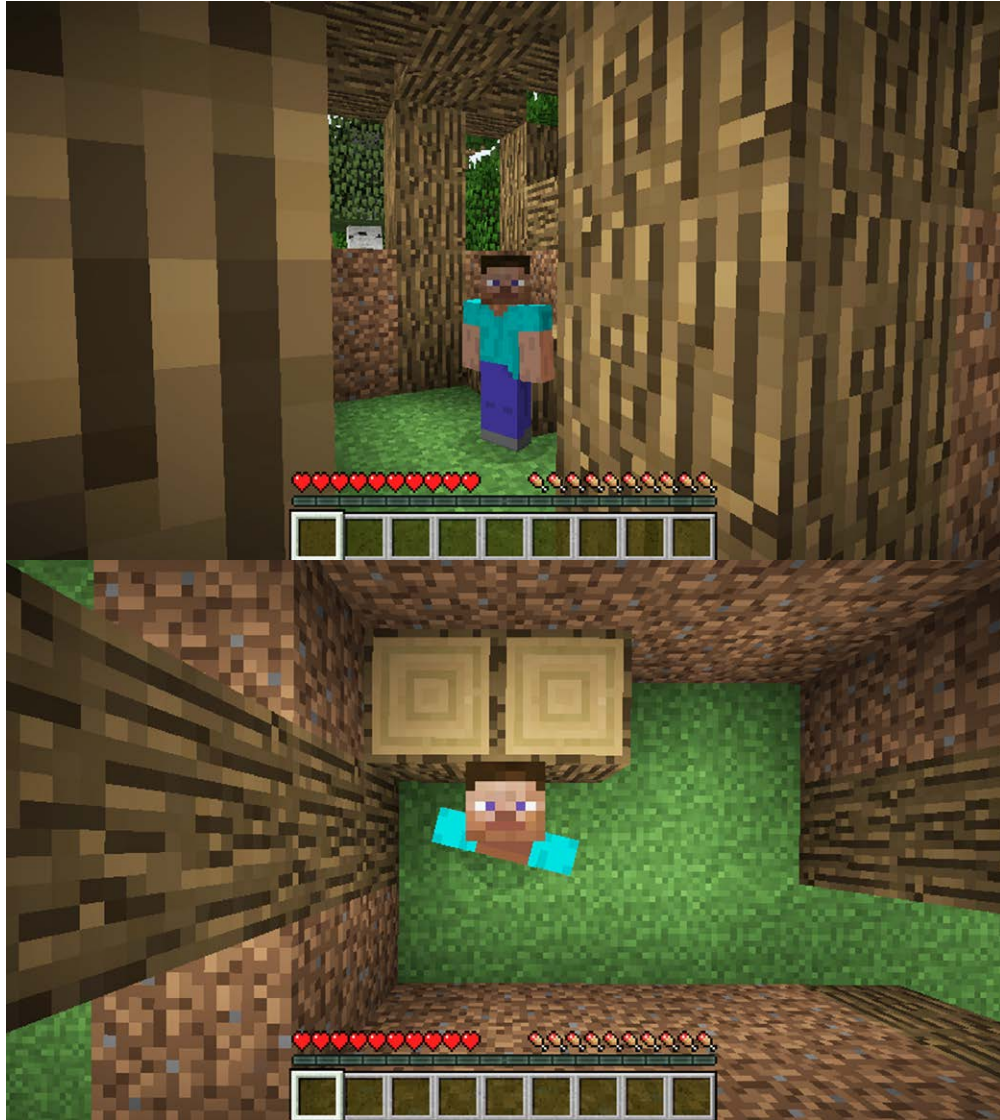
installations of these large-scale photographic tableaux in museums and other public spaces, Streuli raises questions about identity and representation in the modern metropolis. Streuli's first major solo exhibition took place in 1990 at the Helmhaus in Zurich. He has also had solo shows at the Tate Gallery (London), Stedelijk Museum (Amsterdam), and Palais de Tokyo (Paris). Permanent installations of Streuli's photographs are on display at the Lufthansa Aviation Center at Frankfurt International Airport, Dallas/Fort Worth International Airport among others.

www.beatstreuli.com

2018년 여름 토마스 윌먼은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 속 어두운 숲의 외딴 지역으로 떠난다. 어떠한 장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명세계를 훌쩍 떠난다. 작가는 자연 그대로의 야생인 디지털 세계를 여행하다 ‘마법의 숲’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컴퓨터 코드로 집철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야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다.



In the summer of 2018, Thomas Willemen leaves for the desolate areas of the dark forest of Minecraft. Without any tools, a bit impulsive and with a limited amount of knowledge, he leaves the civilized world. Thomas travels through the pristine wilderness of the digital world and finally settles in a forest he calls the ‘The Magic Bush’. Surrounded by the beauty of computer-coded nature, Thomas decides to start a new life in the wild.



토마스 윌먼(1994년 벨기에 출생, 브뤼셀 거주 및 활동)은 큐브에 관한 설치작품을 만들며 사람들이 이를 활용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목해왔다. 사람이 보는 세상의 이미지와 현실세계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듯 윌먼은 사람과 세상간의 괴리에 주목하며 이를 기반으로 설치작품을 제작해왔다. 소재와 개념을 병치시키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작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한다. 2018년 겐트에 위치한 국립 미술 학교(KAST)를 졸업 한 후 작가는 암스테르담의 로에스트(Roest), 브뤼셀의 보자르(BOZAR) 및 뵘슈브르크(Beursschouwburg) 등 유수의 기관에서 작품을 선보여왔다.

Thomas Willemen (b. 1994, BE. Lives and works in Brussel, BE) creates installations about cubes and how people use them as an instrument to perceive the world. The image of the world by people and the actual reality do not match. Willemen focuses on this gap between the human ratio and the universe and uses it to create installations. Matter and concepts are placed next to each other and make the viewer aware of his gaze. He graduated from the Royal Academy of Fine Arts (KASK) in Ghent in 2018. His artwork has been presented at Roest (Amsterdam), BOZAR (Brussels) and Beursschouwburg (Brussels).

How to make a primitive hut in Minecraft

2019
Video installation
7min 23sec
Courtesy of the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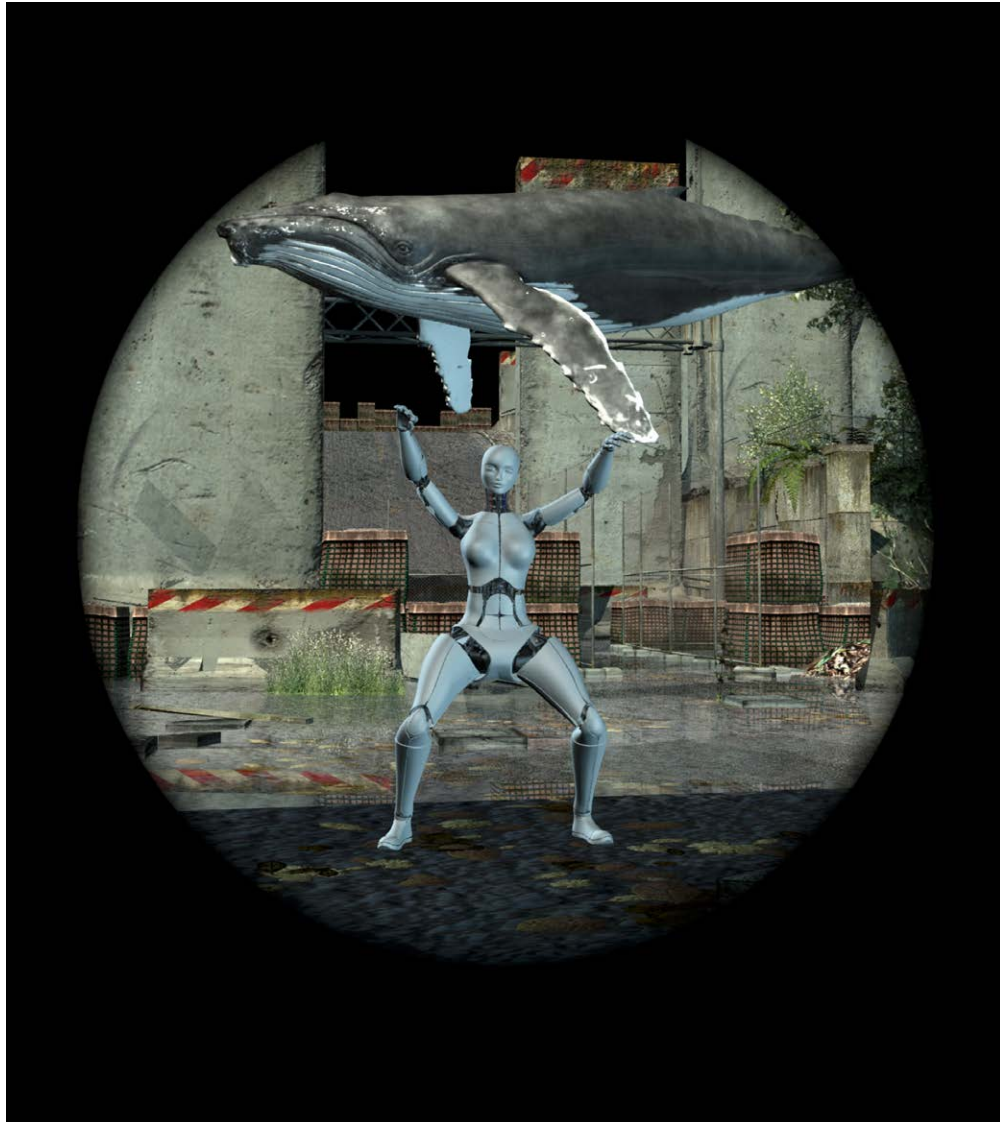
미래열병
Future Fever

2018
Single channel moving image
17min 10sec
Courtesy of the Artist

염지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의식,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시대에 적용한 ‘신인류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맹목적인 인식과 믿음을 일종의 전염병인 ‘미래열병(Future Fever)’이라 진단한다.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이러한 미래열병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급격하게 확산된 미래주의 문화 운동과 같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왔다. 작가는 속도와 힘, 전쟁과 여성혐오를 찬양하고 전위적으로 미래를 맞이하고자 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자들이 결국 유사한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파시즘’과 손을 잡게 된 배경을 살펴봄에 이를 거울 삼아 현재를 비추어본다. ‘미래열병’(2018)은 이처럼 미래를 선점하고자 하는 현재의 사회적 긴장 속에서 잠시 멈추어 극성적 행보를 돌아보고, 이러한 동시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찾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Ji Hye Yeom diagnoses the blind faith and belief, of wanting to become “the new image of mankind” by adapting to the era of advanced technologies to overcome uncertainties and a sense of crisis vis-à-vis the future, as “Future Fever.” Such Fever that contemporary society suffers from has repeatedly emerged over the course of human history, just like the futurist cultural movement that rapidly spread in Europe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Yeom looks into the context of how the Italian futurists tried to radically face the future by lauding speed and power, war and misogyny and ended up working hand-in-hand with the fascists who shared similar goals, and then reflects on the past to understand the present. *Future Fever* (2018), amidst the escalating social tensions of today to dominate the future, takes a brief pause to gaze at the tensions mired in polarization and reveals an attempt to recover our coordinates in today’s social environment.



미래열병

Future Fever

2018
Single channel moving image
17min 10sec
Courtesy of the Artist

염지혜(1982년 한국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는 급변하는 동시대의 사회상에 주목하여 변화하는 인류의 공통적인 경험과 기억을 다학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영상과 설치작업으로 선보인다. 직접 촬영한 영상,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 3D 그래픽 등의 다양한 출처의 영상이미지는 텍스트, 사운드, 나레이션과 혼재되어 시각과 청각을 사로잡는다. 더 나아가 작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설치물과 공간 구성은 작품과 공간, 관객 사이의 관계를 감각적으로 구성한다. 개인적인 경험과 정체성의 고민에서 시작된 장소와 이주에 대한 관심은 특정 문화와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외부의 환경을 통해 형성되는 삶의 방식을 탐구해왔다. 최근에는 동시대 문명사로 귀결되는 현대 사회의 거대담론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Ji Hye Yeom (b. 1982, KR. Lives and works in Seoul, KR) has focused on the rapidly changing trend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to present videos and installations based on multi-disciplinary researches exploring the common experience and memory of mankind on the evolutionary path. Video images from various sources like self-filmed images, found footage, and 3D graphics combined with texts, sound narrations, deliver a powerful visual and sound impact. Moreover, the main pillars supporting the artist's creative practice — installations and spatial setting- aesthetically constitu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work, space and spectators. The artist's interest in space and migration sparked by her personal experience and questioning about identity has led to explore the lifestyles formed through external environment while attempting to form relationships with specific culture. Recently, Yeom has expanded her realm of creation to present broader discourses on

실험과 질문을 지속하고 있다. 가나, 이란, 팔레스타인, 핀란드, 브라질,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레지던시를 지냈고,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아트선재센터와 대구미술관 등 유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the contemporary world resulting in the history of modern civilization, as a way to continue conducting experiments and raising questions. Yeom has participated in residency programs in Ghana, Iran, Palestine, Finland, Brazil, Colombia, and many other places in the world as well as numer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She also held several solo exhibitions in major institutions including Art Sonje Center, and Daegu Art Museum.

www.jihyeYeom.com

주최
글루온, 재단법인 송은문화재단, 수도 브뤼셀
지구, 벨기에 프랑스어권 공동체

전시지원
Laurence Geoffrey's, Ltd.

기획
라모나 반 간스베케
이민영
정푸르나

후원
수도 브뤼셀 지구
벨기에 프랑스어권 공동체
재단법인 송은문화재단

그래픽 디자인
홍은주, 김형재

인쇄
으뜸프로세스

번역
박수정
이애린

홍보
김연우

설치지원
크라운파인아트, 솔로몬아트, 멀티텍

© 2019 (재)송은문화재단 / 본 인쇄물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송은문화재단과 작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Organized by
GLUON and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Brussels-
Capital Region and the French Community of
Belgium

Overall Direction by
Laurence Geoffrey's, Ltd.

Curated by
Ramona Van Gansbeke
Min Young Lee
Pooluna Chung

Sponsored by
The Brussels-Capital Region
The French Community of Belgium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Graphic Design by
Eunjoo Hong, Hyungjae Kim

Printing by
Top Process

Translated by
Su Jung (Crystal) Park
Aerin Lee

Public Relations by
Edie Yonwoo Kim

Technical Support by
Crown Fine Art, Solomon ART, Multi Tech

© 2019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s /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from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